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고성리 고성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미상(여, 생년, 성산읍 고성리)

- 줄거리: 작은부인을 얻어온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지붕에 던져버렸다.
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왜 지붕에 올라갔냐고 물으니 호박 타러 왔다고
딴청 피우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나 승 나.

[조사자] 계난 누구네 할망이.

[제보자] 족은할머니를 헤 오난, 하르방은 고집혜영 막 유식혜영 글도 막 많이 알고 정시
질도 헤도, 거 할망이 막 못 쓰니깐 하르방을 포신을 못 허난, 안아당 지붕 우터
레 던지진 안 혀일거라게. 혹은 데껴부난 넘어가는 사름은 하르방 굽아,

“무사 지붕 우이 올라 간?”

허난,

“아니 나 이디 호박타레 올라 완.”

나 그 말?”지 가완.

- 핵심어 : 할망, 하르방, 지붕, 호박, 족은할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